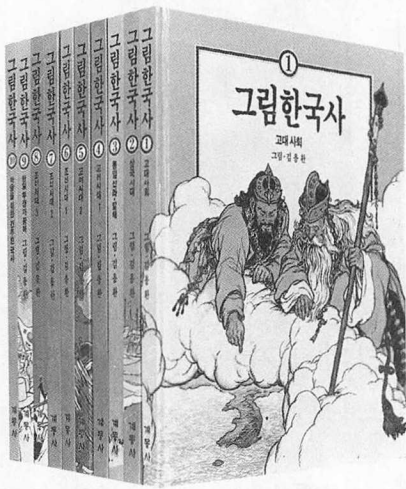


# 보고 읽는 역사책

「그림 한국사」 전10권

글 조풍연 · 그림 김용환



내일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우리의 역사에 흥미를 갖고 배울 수 있도록 꾸민 「그림 한국사」(계몽사)가 나왔다. 조풍연씨가 글을 쓰고 김용환씨가 그림을 그린 이 책은, 어린이들이 자칫 딱딱하게만 생각하기 쉬운 역사를 친근하고 재미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림으로 풀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체 10권으로 이루어진 「그림 한국사」는 20세기까지의 우리 역사를 고대사회,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고려시대(1·2), 조선시대(1·2·3), 항일투쟁과 광복 등으로 크게 아홉단계로 나누었으며,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총정리하는 「학습을 위한 간추린 국사」 편을 두었다.

각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권 「고대사회」에서는 단군 왕검에 의한 고조선 건립부터 고구려 · 부여 · 신라의 등장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제2권 「삼국시대」는 삼국을 이끌었던 영웅호걸들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제3권 「통일신라 · 발해」는 신라에 의한 통일왕국의 건설과정과 고려가 등장하기까지 꽃피웠던 신라의 문화를 다뤘다.

제4권과 제5권 「고려시대」는 후삼국의 치열한 세력다툼과 고려의 등장, 무신정변과 몽고의 침입으로 인한 내외위환, 고려자기로 대표되는 고려의 문화, 이성계의 세력부상을 그렸다. 제6·7·8권 「조선시대」편에서는 조선의 건국부터 일본의 함방에 의한 대한제국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조선5백년의 정치 · 사회 · 문화를 비교적 충실하게 담았다.

제9권 「항일투쟁과 광복」은 일제의 압박 밑에서도 용기와 기개를 잃지 않았던 선조들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이준열사 · 안중근의사 · 유관순 등의 독립투쟁을 그리는 한편 일반국민들의

독립을 향한 의지를 부각시켰다.

제10권은 고대사회부터 제5공화국까지의 역사를 종합 · 정리한 개설서. 앞의 9권이 어린이 독자들로부터 부담없이 글과 그림을 즐길 수 있게끔 꾸몄다면, 제10권은 실제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사교과과정에 맞추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점이 특징이다. 본문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진자료를 풍부하게 수록했다.

「그림 한국사」에서 우선 눈에 띄는 점은, 1권과 10권을 제외한 각권마다 첫장에 그 시대의 지도와 연대표를 수록한 점. 4세기 경 삼국의 세력판도, 10세기경 삼국의 모습, 임진왜란 당시 왜군침입로와 의병활동지역 등 상세한 지도를 덧붙여, 편집에 성의를 엿보게 한다.

본문의 내용이 다소 정치사 쪽으로 치우친 느낌도 있으나, ‘연오랑과 세오녀’ ‘만파식적’ 등과 같이 교토에서는 벗어나나 우리 민족의 정서를 보여주는 옛 이야기들을 중간 중간 삽입해 딱딱함을 덜었고, 각 시대의 찬란했던 문화와 서민들의 생활상도 담으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또다른 특징으로는 김용환씨의 사실적인 그림. 울 켈리로 수록된 이 그림들은, 각 시대의 의복 · 생활도구 등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됐다. 어떤 사실을 그림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역사학자 천관우씨가 직접 가렸고, 손경자(세종대), 이훈중(건국대), 허선도(국민대) 교수 등이 고증을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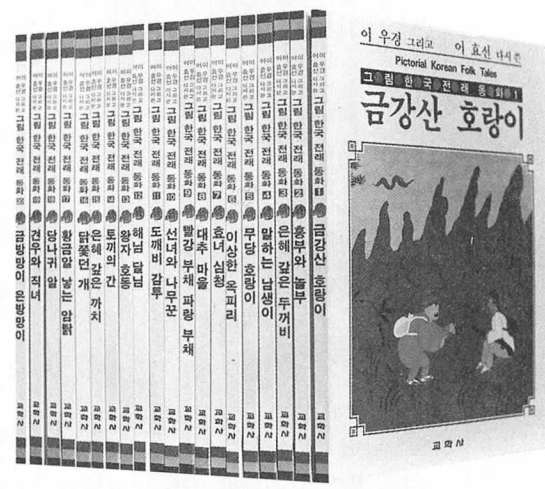
어렵고 복잡한 역사적 사실들을 쉬운 말로 풀어 쓰고 화려한 그림으로 내용을 적절하게 보완하고 있어 국민학교 상급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누구나 역사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한 책이다.

계몽사 / B5 / 각권128면 / 전절70,000원

#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그림 한국전래동화」 전20권

글 이효선 · 그림 이우경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읽는 그림동화집이 나왔다. 아동문학가 이효선씨가 우리의 전래동화를 구어체로 새로이 쓴 「그림 한국전래동화」(교학사)가 바로 그것.

“옛날 옛적에 유복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아버지는 이름난 포수였다는군. 금강산으로 호랑이를 잡으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야. 보나마나 죽은거지...” 식으로, 본문의 글이 모두 남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따라서 한글을 깨치기 전인 미취학아동과 부모가 함께 보면서 어린이에게 이야기하듯 읽어줄 수 있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어린이는 스스로 남에게 읽어주는듯 낭독함으로써 더욱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효선씨는 후기에서 “예부터 가정교육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왔다”고 말하고, “세상이 복잡해져가면서 할머니하고도 따로 살게 됨에 따라 옛날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따라서 부모가 읽어주거나 어린이 스스로 읽어가면서 할머니의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문장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호랑이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금강산 호랑이’, 신기한 요술부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우스운 이야기 ‘빨강 부채 파랑 부채’, 착한 동생과 마음씨 나쁜 형을 통해서 권선징악의 가르침을 일깨운 ‘금방망이 은방망이’ 등 선조들이 남긴 교훈, 인정과 해학을 담은 동화 32편을 20권에 나누어 수록했다. 특히 이우경씨의 시원스러운 그림은 보는 책으로서 이 책의 가치를 한결 높여준다. “한국민화의 동화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민화에서 많은 것을 섭취해 글과 그림이 어울리도록 시도해봤다”는

이우경씨 자신의 말처럼, 한국적인 토속미와 소박한 아름다움을 물씬 풍기는 그림들이 시선을 끈다.

언제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는 옛 이야기들을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앉아 읽어봄으로써 어린이는 조상들의 지혜와 교훈을 배울 수 있고, 어른들은 어린시절 할머니 무릎에 누워 들었던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그림책이다.

- ① 「금강산 호랑이」
- ② 「홍부와 놀부」
- ③ 「은혜 값은 두꺼비」
- ④ 「말하는 남생이」
- ⑤ 「무당 호랑이」
- ⑥ 「이상한 옥피리」
- ⑦ 「효녀 심청」
- ⑧ 「대추 마을」
- ⑨ 「빨강 부채 파랑 부채」
- ⑩ 「선녀와 나무꾼」
- ⑪ 「도깨비 감투」
- ⑫ 「해님 달님」
- ⑬ 「왕자 호동」
- ⑭ 「토끼의 간」
- ⑮ 「은혜 값은 까치」
- ⑯ 「닭 쫓던 개」
- ⑰ 「황금알 낳는 암탉」
- ⑱ 「당나귀 알」
- ⑲ 「견우와 직녀」
- ⑳ 「금방망이 은방망이」

교학사 / A4변형 / 각권 44면 / 전절 80,000원

## 아동시의 이해와 감상

김한룡 엮음

대일출판사 / A5신 / 284면 / 2500원

1970년 이후 각종 글짓기대회 및 백일장, 예술제에서 뽑힌 161편의 동시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한편한편마다 엮은이가 해설을 붙여, 시짓기에 관심을 둔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엄마 눈에 다정한 미소가 담겨 있고, / 아빠 눈에 엄격하심 마음이 숨어 있죠. / 오빠 눈에 개구장이 때를 생각하는 마음, / 동생 눈은 엄마 젖만 쳐다보는 눈, / 우리 집 가족들의 동그란 눈은 저마다의 생각을 품고 있어요.’(최은화의 「눈」), ‘밤집은 가시 등우리. / 밤옷은 밤색 비단옷. / 밤 마음은 포근하고 하얀마음.’(김경주의 「밤」) 등 어린이들의 슬기와 재치가 넘치는 동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 귀신한테 홀린 아이

조병규 지음

대교문화 / A5신 / 144면 / 2000원

동네 앞 개울의 너럭바위에 앉아 놀고 있던 아이들은, 밝은 달빛을 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아쉬웠다. 유난히 겁이 많은 기달이는 친구들을 부추겨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지만 귀신이라도 나타날까봐 무섭기만 하다. 어느새 잠이 든 기달이는 꿈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맨발로 집밖으로 뛰쳐나간다. 귀신한테 홀린 기달이는 개울의 징검다리도 펄쩍펄쩍 건너 뛰고, 좁다란 논둑길을 지나 아기무덤이 즐비한 산비탈 자갈밭에 올라 허물어진 아기무덤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것이 아닌가.

옛날이야기에 반드시 끼이는 무섭고도 재미있는 귀신이야기 11편을 묶었다.

## 지혜의 샘터

박화목 지음

꿈동산 / A5신 / 208면 / 2000원

어린이들을 위한 명언집. 옛 어른들의 슬기를 배우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위인들이 남긴 갖가지 명언들을 소개했다.

제1부 명언편에서는 굽히지 않는 용기로 남극을 탐험했던 스크트,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최고의 발명가가 된 에디슨,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등을 비롯해 위인들의 명언을 우리의 감각에 맞게 꾸며 제2부 소개했다. 탈무드편에서는 탈무드에 수록되어 있는 주옥같은 명언들을, 제3부 성구편에서는 성서에 실려 있는 지혜의 말씀들을 각각 짧은 동화로 꾸며 수록했다.

## 그림형제 동화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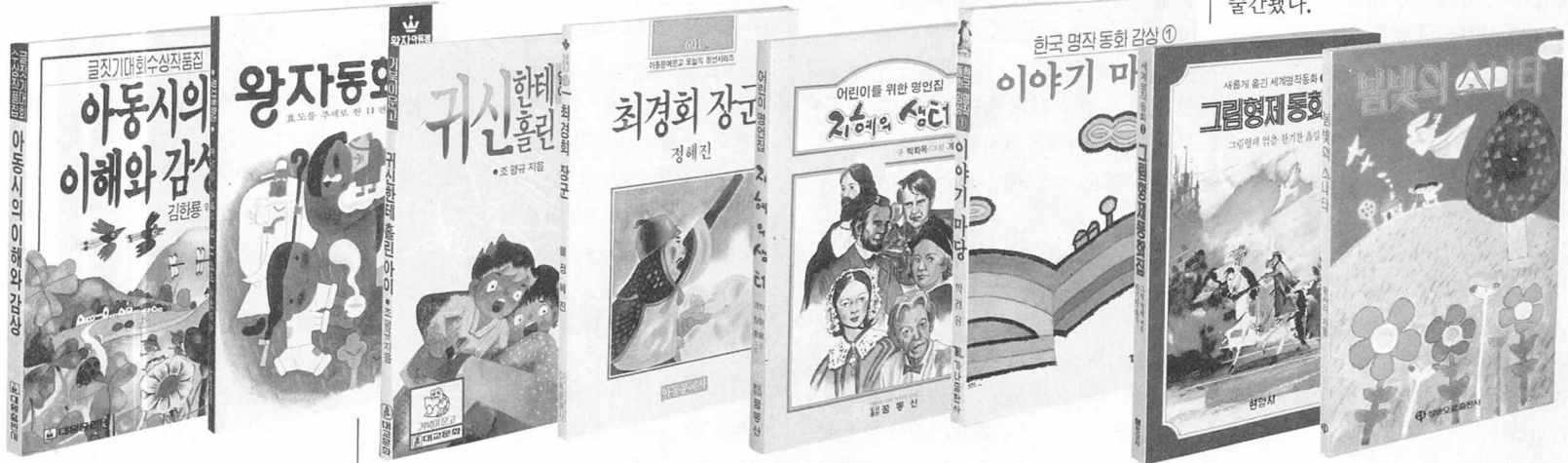
그림형제 엮음 / 한기찬 옮김

현암사 / A5신 / 156면 / 2400원

독일의 빌헬름과 야곱 그림형제가 오랫동안 전해져 온 민간설화를 모아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끔 펴낸 156편의 동화들 중에서 29편을 엄선하여 번역했다.

「개구리 왕자」 「신데렐라」 「용감한 꼬마 재봉사」 「백설공주」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들과 「롬펠슈틸체」 「요리다와 요링겔」 「퐁데포겔」 등 생소한 이야기들을 고루 실었다. 독일어 원본을 직접 번역하여 내용에 충실을 기했고, 폴란드의 화가 그라비안스키의 삽화를 곁들여 재미를 더했다.

새롭게 옮긴 세계명작동화1. 「안테르센 동화집」 「셰익스피어 동화집」도 함께 출간됐다.



## 왕자 동화집

이청준 외 지음

샘터사 / B6 / 128면 / 1200원

섬에서 바다 건너 물마루로 시집을 간 새댁은, 시집간지 얼마 안돼 남편을 잃고 여든살이 넘은 눈먼 시아버지 한 분만을 모시고 살고 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새댁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뜻밖의 슬픈 소식이 전해져 왔다. 눈먼 시아버지의 재촉을 받은 새댁은, 시아버지가 잡수실 며칠간의 끼니거리를 미리 장만해 놓고 섬마을 친정집으로 뱃길을 떠났다. 막상 친정집에 도착해보니 어머니는 멀쩡하게 살아 있고, 게다가 새댁을 개가시킴으로 결정하여 새 남편감까지 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남달리 효심이 깊은 새댁은 저녁 바닷가에 나가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안타까와 하는데 마침 호랑이가 나타나 새댁을 태우고 바다를 건넌다.

「효부 태워준 호랑이」(이청준) 등 효도를 주제로 한 11편의 동화모음.

## 최경희 장군

정혜진 지음

아동문예사 / A5신 / 178면 / 2200원

지금으로부터 450여년전인 1532년 11월22일, 전라도 화순 삼천리 상삼마을에서 최경희는 만연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남달리 총명했던 그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43세의 늦은 나이에 벼슬길에 오른다. 1592년 4월13일 왜적이 부산에 들어와 전국이 전쟁에 휩싸이자, 최경희는 61세의 나이에 의병대장이 되어 전라북도 장수와 무주·금산 등지의 싸움에서 뛰어난 전술과 용맹으로 왜적을 물리친다. 1593년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용감히 싸우던 그는, 형세가 불리하게 되자 더러운 왜적의 칼에 죽을 수 없다 하여 축석루에 올라가 죽기를 맹세하는 시를 읊은 후 남강물에 몸을 던진다.

충의공 최경희 장군의 애국충절을 그린 전기.

## 이야기 마당

박경용 엮음

가나출판사 / A5신 / 206면 / 2000원

1970년대 전반까지 등단한 동화작가들의 작품들 중에서 대표작을 한판씩 골라 수록했다.

1926년 「어린이」라는 잡지의 1월호에 실렸던 마해송의 「바위나리와 아기별」, 연놀이를 중심으로 복제기와 벽쇠 두 친구의 심리를 그린 이구조의 「방패연」, 일본 제국의 압박 밑에 허덕이는 우리 겨레의 운명을 한 덩이의 돌로 표현한 강소천의 「돌맹이」 등 어린이의 생활에서 우러난 호뜻한 얘기, 사물과 사람이 하나로 얽혀 빛어내는 티없이 맑고 밝은 얘기 18편이 실려 있다. 작품마다 지은이 소개와 도움말을 곁들였다. 한국명작동화감상1. 동화감상 두번째권 「이야기 잔치」도 함께 출간됐다.

## 봄빛의 소나타

황사라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A5 / 156면 / 2000원

숲 기슭 언덕 위로 강변의 버들개지 위에 봄천사의 입김이 불어닥치는 듯한 첫봄의 어느날, 어느 새마을의 누집 온실에서는 꽃들의 환담회가 한창이다.

입춘을 맞아 「입춘대길」이라고 창호지에 쓴 먹글씨를 온실 문에 붙이면서 꽃짓기 아저씨가 “이 좋은 날 꽃들아, 좋은 꿈 많이 꾸어라. 좋은 데 시집가는 꿈을 말이지”라고 말하자, 꽃들은 헤어지기 전에 서로에 대한 추억을 보다 푸짐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스가 고향이면서 ‘돼지만두’란 별명을 가진 시클라렌, 아프리카가 고향인 프리지아, ‘젊은이의 희망’이란 꽃말을 지닌 프리틀라 등을 재미있게 소개한 「입춘날의 꽃 입술들」, 예수부활을 찬미한 「봄빛의 소나타」 등 13편의 동화를 수록했다.